독립운동도량서 상생도량으로 발전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 창건 109년 기념행사 봉행

4월 8일~12일 5일간 개최
학술대회, 토크쇼 등 다채
장학금 전달로 인재 불사
10일엔 지역 담장 제막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정법사는 4월 8일~12일 개원 109주년 기념 세미나 및 행사 '역사의 울림 속으로' 를 봉행했다.


1928년 3월 마산사립배달유치원 1회 졸업식.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과거와 현재를 잇고 미래를 여는 도량으로의 새 이정표를 제시했다. 마산 정법사(주지 도문)는 4월 8일부터 12일까지 개원 109주년 기념 세미나 및 행사 '역사의 울림 속으로' 를 도량 일대에서 봉행했다.

정법사는 5일 간 학술대회와 초청강연, 법회 및 토크쇼 등을 진행해 통도사 마산 포교당의 건립 이유와 문화를 고찰하고 '담장 제막식' 을 통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도량으로 나아 갈 것을 밝혔다.

먼저 학술대회에서는 정법사의 창건 배경 설명과 교육의 초석이자 민족정신 도량의 정체성이 규명됐다.

주지 도문 스님은 "3.15 부정선거에 맞서 투쟁한 민주항쟁의 발원지인 마산에서 정법사는 민족정신의 도량이 되었고 교육의 초석이었다"며 "109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를 통해 불자들의 자긍심을 찾고 마산포교당 정법사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법사는 사단법인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와 협약을 맺고 지속적인 기록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장 석문 스님은 "정법사는 우리나라 3대 포교당으로 개항지에 처음 문을 연 도량"이라며 "포교와 전법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정법사의 역사를 조명해 영남불교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정법사의 역사와 문화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고찰하기 위한 시간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1부 내빈들의 개회사와 축사를 이어 △'개화시기 포교당 역사의 조명' △마산 정법사 목조보살상 연구-조성시기와 작가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마산지역 일본 불교의 활동과 마산 포교당의 대응에 관한 고찰 △근대불교 사진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 논구-마산포교당을 중심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발표는 통도사 반야암 회주 지안 스님,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 감정위원, 황정일 동국대 연구교수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대회에 앞서 정법사는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정법사는 배달유치원(現대자 유치원)을 설립해 일제 강점기 민족의 뿌리를 지킨 민족교육 도량이다.

장학금 전달을 통해 정법사는 인재불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스님들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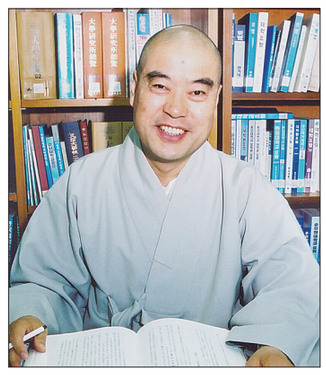
장학금 전달식에서는 서울대 외 대학생 6명에게 각 150만원, 정희석 마산제일고 3학년 학생 외 4명에게 각 100만원, 정백현 마산구산중 학생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정다운 경남기술과학고 3학년 외 3명에게는 파라미타 특별장학금 50만원도 각각 전달됐다.

이와 함께 정법사는 4월 10일 주민들을 위한 '담장제막식' 도 봉행했다. 정법사는 담장을 '마음을 열자' 라는 의미로 새롭게 꾸몄다. '아름다운 꼬부랑길 담장' 으로 이름 붙여진 정법사 담장은 꽃살문 형태로 꾸며졌다. 담장 제막식에는 주지 도문 스님을 비롯해 허성무 창원시장,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담장 공사를 맡은 이근세 작가, 서경호 주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안미옥 신도회장은 "담장을 가교라 생각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창원시불교聯, 제6대 회장 정인 스님 선출

4월 22일 창원시청서 이 · 취임 법회


창원시불교연합회 제6대 회장으로 추대된 정인 스님.

"창원불교연합회는 100만 창원 시민들을 위해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 불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남 창원시불교연합회 제6대 신임 회장에 창원 불지사 주지 정인 스님이 추대됐다.

창원시불교연합회는 4월 7일 불지사에서 제5대 회장 월도 스님의 임기만료에 따른 신임회장 선출을 위해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제6대 회장에 정인 스님을 추대했다.

정인 스님은 추대 직후 창원시 발전과 지역민들의 행복을 위해 종교 지도자로서 담당해야 할 역할을 알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님은 "창원불교를 이끈 스님들의 모범적인 행보를 따라 활동하고 널리 창원 불교의 화합을 이끌어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실천 할 것"이라며 "불교를 통해 자비와 지혜가 넘치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인 스님은 1953년 1월 경주서 출생해 1968년 해인사서 보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 졸업 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일본 아이치가쿠엔대학원에서 수학하며 종교학 석사와 불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를 시작으로 대학원장, 총장 직무대행을 거쳐 2018년에 퇴임했다. 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3선), 쌍계총림 하동 쌍계사 전계대화상(율원장)과 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스님은 저서 〈현대인을 위한 불교교리〉, 〈부처님의 생애〉, 〈불교와 세계종교〉 등을 펴냈다. 창원시불교연합회 제5 · 6대 회장 이 · 취임 법회는 4월 22일 오후 5시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열린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제121회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 봉행

범어사 4월 22~26일, 금강계단 보제루서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 5일간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121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산림' 을 봉행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제121회 선찰대본산 금정총림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산림' 을 봉행한다. 범어사는 4월 22일 오전 10시 방장 지유 스님을 법사로 보살계 수계 산림 입재식을 봉행, 마지막 날인 4월 26일 오전 10시 법문과 수계식, 계첩 수여 등으로 일정을 회향한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 산림은 성월 스님이 1909년 범어사 금강계단을 개설해 시작됐다. 올해 121회를 맞으며, 우리나라 역사 중 가장 오랜 전통을 가진 전계불사다.

범어사는 "범어사에서는 역병과 천재지변으로 혼탁한 시절, 지계의 인연 공덕을 이어 가고자 어렵게 자리를 마련했다. 수계는 어둠에서 빛을 의지하는 것으로서 이번 수계 산림은 코로나19로 어두운 세상에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만나는 인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매년 보살계와 맞춰 열리는 개산대재는 코로나19로 연기하고 가을에 봉행될 예정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해인사, 국민 행복 위한 팔만대장경 정근

제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4월 9~10일 정대불사 봉행


해인사는 4월 9~10일 경내에서 '제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를 개최했다.

법보종찰 가야산 합천 해인사에서 팔만대장경을 찬탄하는 정대불사가 진행됐다. 해인사(주지 현응)는 4월 9일~10일 경내 일대에서 '제61회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날 기념행사' 를 개최했다.

행사는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전계사 무관 스님, 진인성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행사서는 봉찬법요식과 호국금광명경 합송, 정대요잡, 공덕주 헌다례 등이 진행됐으며, 대중이 적은 반야심경 사경을 소전하는 의식으로 회향됐다.

방장 원각 스님은 "고려왕조서 일어난 두 번의 전쟁은 여타 전쟁과 해결방법이 달랐다"며 "군신들과 백성들은 번뇌의 극치인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팔만사천법문을 선택했으며 사부대중이 조성을 하며 일체가 됐다. 팔만대장경을 만들면서 전쟁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불가사의한 부처님의 힘"이라고 설명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팔만대장경은 평화의 비전이요, 정신이다"며 "우리 다함께 평화의 길로 가자. 평화는 적극적인 도전의 삶이며 이기심이 아닌 통일된 이타심"이라고 강조했다.

주지 현응 스님은 "올해 기념행사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확산일로에 있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사태의 조속한 종식, 그리고 국가사회의 안녕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행사로 진행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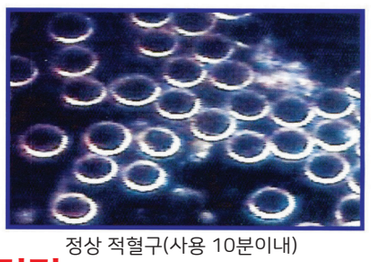
한편, 해인사는 팔만대장경의 날을 기념하며 불교문화체험인 △등 만들기 △에코파우치 만들기 △추억의 뽑기 △장경판전 조립하기 △솜사탕 나눔 △승려복지 CMS부스 △관음지장모연부스 등 다채로운 부스를 운영해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비누로 손·얼굴 한번 씻었는데 20분도 채 안되어
엉켜있던 적혈구가 정상 적혈구로, 불안정한 뇌파가 안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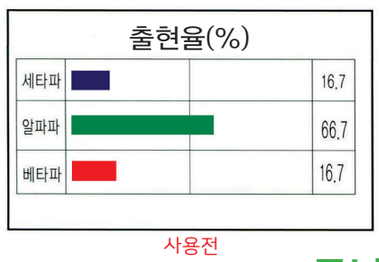
생혈액 촬영


연전현상(사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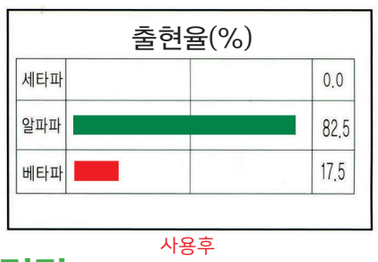

정상 적혈구(사용 10분이내)

혈액건강

뇌파 측정촬영



사용전



사용후

두뇌건강

검버섯 제거 현상


사용전


사용 6개월 후

세포건강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건강, 인류건강을 위하여 적극 보호 지원 육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피가 맑아져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혈관이 깨끗해진다면, 차가웠던 손 발이 따뜻해지며, 면역력 증강과 각종 혈관 질환 예방 및 각종 두통이 사라지며 탈모예방과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비누거품을 코 속에 넣고 마사지 해주면 감기예방하고 코막힘, 비염, 축농증 예방 및 치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항균 폐렴균 · 대장균 ·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 99.9% 정균감소는 폐렴균에 의한 모든 폐렴질환을 예방할 것이며 대장균 99.9% 정균감소는 식중독, 배탈, 설사를 예방하고 포도상구균 99.9% 정균감소는 아토피, 검버섯, 무좀, 비듬, 사타구니 가려움증, 발뒤꿈치 각질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

때를 일부러 밀지 않고 비누거품으로 마사지만 해주면 깨끗이 세정되는 특징과 피부가 투명하고 매끄러우며 윤이 나므로 스킨, 로션을 바르지 않아도 피부보습효과가 뛰어납니다.

탈취 75%는 발냄새, 겨드랑이, 체취, 홀아비냄새, 노인냄새 제거.

피가 맑아지고 뇌파가 안정되는 게르마늄 허브비누

BLOOD MATE®
항균 99.9% 탈취 75% 음이온 126cc 원적외선 방사 90.2%

BLOOD MATE® 강비누:120g 2개 100,000원
BLOOD MATE® 순비누:120g 4개 100,000원
ORAL MATE® 치 약:120g 3개 63,000원

~~263,000원~~ ➡ SET 구매시 100,000원

세상에 이런 세정제를 보셨습니까?

㈜에이스삼강 02)353-9692 , 010-2791-3696
농협 301-0238-2776-51 예금주 : ㈜에이스삼강